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세례의 깊은 의미**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의 교훈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며 그의 구속(救贖) 사역은 완전하므로 우리가 오직 그 분만 믿고 따르고 오직 그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들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었다. ‘초등학문’이라는 원어(스토이케이아)는 ‘초보적 원리들’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나 종교들의 초보적 원리들을 가리킨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결국 헛된 속임수임을 암시한다. 사람의 철학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헛된 속임수이다. ‘노략할까’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 오히려 빼앗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헛된 속임수들이요 실상 우리를 노략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항상 굳게 서야 한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세상의 철학들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일부분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 곧 충만하신 신성이 거하신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진리와 같은 진리도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 그

리스도의 속죄 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이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페플레로메노이)[완전케 되었으니](KJV, NASB)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히 10:14)고 말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政事)와 권세의 머리이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머리이다.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 정치기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뉘룩신의 죄의 몸(전통사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악된 옛 자아 곧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것이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라는 법적 구원이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성결을 상징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결을 얻은 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다.

[12-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 곧 참된 성결은 세례 의식으로 상징되었다. 세례는 죄 씻음의 뜻을 가지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확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완전은 결국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와 중생(重生)을 가리킨다. 사죄 곧 죄사함을 받은 무죄(無罪) 상태는 의(義)의 상태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이다.

[14-15절] 우리를 거스리고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 안에서, 그것 안에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율법 조문들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義)를 입혀 주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된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6:14), 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7:6)고 말했고,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8: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폐하시는 법적 조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악령들의 세력들도 폐하셨다. ‘정사와 권세’는 악령들을 가리키며, ‘벗어버렸다’는 말은 악령들의 세력을 폐하셨다는 뜻이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죄(赦罪)의 사실을 악령들 앞에 드러내셨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죄와 악령들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고안해 낸 종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속임수들이다. 그

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과 종교들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神性)의 충만이 있으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神性)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완전하였다.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충족하셨다. 우리는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율법의 속박도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완전케 되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회복을 얻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주일오후설교 | 성전과 두 증인의 환상

[계 11:1-2]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적 표현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일차적으로는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인 참된 성도들도 가리켰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며 ‘척량한다’는 말은 소유물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는 대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성전 밖 마당’은 성전 뜰만 밟는 중생치 못한 형식적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인간적 교제나 세상적 유익을 위해 다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본질상 불신자들이다. 이런 형식적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 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지 모르나, 그보다 이름만 가진 형식적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가리킨 듯하다. 그 속에는 천주교인들, 각종 이단종파 신봉자들,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된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연

합운동의 세계이다. 이방인의 기독교 세계는 이방인에게 마흔 두 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3년 반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지 않은 어떤 기간을 상징할 것이다.

[3-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배움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다. 말씀하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인다. 두 증인이 나타나 굶은 배움을 입고 1,260일간,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것이다. 두 증인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진다. 예수께서는 전도자들을 들씩 내보내셨다(눅 10:1). 굶은 배움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입은 복장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다.

1260일은 신약교회시대를 가리킬지 모른다. 주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24)고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성은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1260일은 여섯째 나팔로 계시된 유브라테 강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형식적 교회들과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에 더 적합해 보인다. 또 아마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두 증인들은 이 땅의 주, 곧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구약 스가라 4장의 환상에 나오는 총독 스톱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비슷하다. 본문의 두 증인은 3년 반 환난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약교회 혹은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이 감람나무라 불리는 것은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이며 촛대라 불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약교회 혹은 두 명의 종들일 것이다. 모세가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듯이, 또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듯이, 그

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같이, 그들은 그 사역기간 동안 여러 능력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7-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아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무저갱’은 깊은 구덩이를 가리킨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지는 짐승같이 사납고 난폭하며 이성과 도덕성이 없는 인물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 곧 ‘죄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체적(專制的), 독재적 통치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로부터 활동해왔다. 역사상 로마제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활동하였다. 그들은 많은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또 죽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나타나면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보인다.

두 증인들의 시체가 놓여질 큰 성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일 것이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었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이며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었다. 또 그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셨던 곳, 즉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는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된다. 그 도시는 뒤에 나올 음녀와 바벨론으로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한 도시일 것이다. 그것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를 가리킬 것이다. 역사상 로마가 바로 그런 도시이었다.

[9-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

이다. 왜냐하면 두 증인들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1-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동인뿐이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 혹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감으로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더구나 부활한 그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성도가 주를 영접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올 것이다.

[13-14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의 승천이 있을 때, 그 큰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듯이(출 9:27; 10:16, 17; 단 2:46-47), 이런 행위가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다. 첫째 화는 황충 재앙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테 강에서의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과 큰 지진이다. 이제 마지막 화만 남았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계시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전 뜰만 밝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쭉정 이와 같고 가리지와 같고 염소와 같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주의 비유에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고, 주께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말하였다(딤후 4:3-4).

둘째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바른 목사들의 교훈을 즐거움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성도들이 구원받은 표를 지닌 자들이며 환난 날에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자들이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들로서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해야 한다. 환난 날에는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많은 형식적 교인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요일 설교 |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

[속 9:9-10]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꿇겠고 전쟁하는 활도 꿇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17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保障)[요세]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값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만방에 전해야 한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가 보내신 구주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께서는 본문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셔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의로우시며 의를 이루셨고 온 세계에 참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의지해야 한다. 세상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의 해결과 의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세상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그는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함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영화로우시다.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